

멕시코 최대 환경 전시회

The Green Expo 2011

그린 엑스포 2011 현장 스케치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멕시코시티의 World Trade Center 전시장에서 멕시코 최대의 환경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19회 째 개최되었으며 명실공히 멕시코 환경산업에 있어 제일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 전시회는 멕시코에서 유일하게 국제적인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온 박람회로서, 이전에는 Enviro Pro Mexico라는 이름으로 환경과 에너지 관련한 전시회로 개최되었지만 2009년부터 그린 엑스포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되고 있다.

전시회는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한 Enviro Pro, 청정에너지를 주제로한 PowerMex, 수자원을 주제로한 WaterMex, 친 환경 도시 개발과 폐기물 처리, 친 환경 교통설비를 주제로한 Green City의 작은 전시회를 포괄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기업의 제품 홍보는 물론 전시회 기간 내내 환경 관련 세미나가 개최되어 멕시코의 환경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환경 분야 진출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올해 전시회는 2010년과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되었지만 규모면에서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40% 증가하였으며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250여개의 업체가 참가, 태양열 패널, 태양열 난방기, 정수처리 시스템, 가스 자동차 등을 전시하였다.

그린 엑스포 전시회장 입구와 포스터



출처 : 멕시코시티 무역관

외국 기업 참가도 활발

이번 전시회에는 외국 기업의 참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미국,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독일 등이 참가하였다. 영국은 대사관과 투자청에서 공동 전시관을 구성 참가하였으며 미국 콜로라도 주는 미국관과 별도로 전시관을 구성하여 미국 기업과 멕시코 기업들의 상담을 주선하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 기업의 대거 참가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다. 중국 기업은 대부분 태양열 패널을 전시하여 멕시코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반면, 캐나다 기업은 재활용과 관련된 제품들을 주로 전시하였으나 멕시코에서는 재활용이 일반적이지 않아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태양열 보일러제품이 전시품의 주류

멕시코는 일조량이 풍부해 태양 에너지 활용 잠재성이 큰 국가 중 하나다. 이를 반

영하듯 이번 전시회는 태양 에너지 활용 전시회라고 명할 수 있을 만큼 이 분야의 제품이 주를 이루었다. 대부분의 태양열패널은 낮은 가격을 앞세운 중국기업에서 전시

태양열 보일러 전시 부스와 제품



출처 : 멕시코시티 무역관

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미국, 캐나다의 기업들이 새로운 태양열 패널을 전시하고 있었다.

태양열을 이용하여 물을 덥힐 수 있는 태양열 보일러는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태양열 에너지와 관련된 70%의 업체가 태양열 보일러를 전시하는 등 멕시코의 태양열 에너지 활용 트렌드를 보여주었다.

아직은 미흡한 멕시코의 쓰레기 분리수거

멕시코시티에서 하루 평균 생산되는 쓰레기의 양은 약 1만 톤에 달한다. 3년 전부터 멕시코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시행되었으나, 아직은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멕시코시티에서는 지난 9월부터 의무적으로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하는 정도일 뿐이다.

재활용 쓰레기통



출처 : 멕시코시티 무역관

멕시코의 분리수거 쓰레기통 생산 업체인 A1 Contenedores 사에는 색깔로 구분한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홍보하였다. 주로 호텔과 학교 등의 대형 건물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었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일반 기업, 주거 단지에서 사용이 가능한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전시하였다. 동 기업의 제품은 색깔로 쓰레

기 종류 구분이 가능하며, 유리, 플라스틱, 폐지 등의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의 분리수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멕시코의 환경 및 에너지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멕시코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또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 매립지, 수처리 시설 등의 프로젝트들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멕시코의 그린 시장에는 미국, 유럽 등과 같은 멕시코의 전통 교역 파트너들이 진출해 있을 뿐 아니라 중국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진출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도 그린 엑스포와 같은 환경 관련 전시회를 통해 멕시코 시장에 한국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빠른 시일 내에 멕시코 시장에 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